

38. 벼슬을 사양한 5가지 이유(59세)

1559년 2월 경 휴가로 내려 왔는데 그해 초여름 경상감사가 왔다.



“넛째, 말은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면서
물러나지 않는 것은...”

쫓겨날 때
까지 버틸거야!



“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크게
어긋나는데 제가 바로 그러합니다.
그러니 시골에서 병이나 치료하고 더 이상
허물 짓지 않도록...”

그만 저를 놓아
주십시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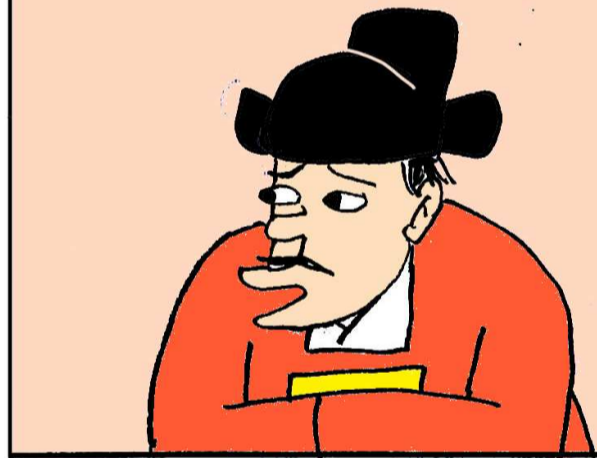
일부 재상들이 말했다.

전하, 퇴계는
마치 산금山禽과
같습니다.

산금 즉
산에 사는
새



산새를 잡아다가 길 들인다고
집새가 되나요? 어림도 없습니다.



일부에선 비아냥거림도 있었다.

퇴계가
이번에도 배팅
잘했어.

암, 거절할 때 마다
한 계급씩 오르니...



날 몰라준다고 어찌 남 탓하겠는가?
내가 부족한 탓이지...





당시 퇴계의 평판은,

구퇴득진 사소수대 求退得進 辭小受大라
물러나는 척하다 나아가고, 작은 벼슬은
사양하고 큰 벼슬만 받아요.

날 저리도
모를까...



내 진정은 이것입니다. 즉
구태난득 사수역난
求退難得 辭受亦難

물러나려 해도 어렵고
벼슬을 사양해도 또한
어렵단 말이죠.

그 그렇군요...



한갓 임금의 총애만을 중히
여긴다면 그것은 임금과
신하 간의 예의가 아니라
관작과 봉록 때문일테니
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
할 수 있겠습니까?

아니 되겠지...



퇴계의 말이 지극히
타당하였기에 임금도
어찌하지 못하였다.